곤고함에서 행복함으로

(로마서 7:14~25)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곤고함에서 행복함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곤고함에서 행복함으로'
24절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7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말씀이다, 대단한 말씀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자주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종교적 사상적 철학적인 통찰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적 고민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고민과 깨달음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생겨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율법, 하나님, 영, 속사람, 죄의 노예'라는 표현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범주의 고민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곤고함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이고 행복함으로 가기 위한 첩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곤고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과하는 것 외에는 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해보자면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곧 나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대처해야 될 사건과 대상과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보조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내가 고민할 바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과 사도 바울의 고민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 해답을 추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사고가 끝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목표로 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거나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사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회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것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면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마주하는 일들을 함께 만나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드리면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종은 스스로 해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주인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종의 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고민합니다.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돈 문제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결론을 내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 드릴 것인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든 그 어떤 문

제든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보조를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춰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선적인 주체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속을 낱낱이 알고야 말겠다는 다분히 교만한 발상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핑계로 작용합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 보조를 맞출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반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보조를 맞출 수도 없다"는 생각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조를 맞출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라고 하였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들의 기원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세를 통해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신령하다고 언급된 이유는 바로 율법이 그토록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출 수도 없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으로써 율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답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신령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조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격적 체질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뜻과 생각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인격적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고민과 탄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속되게 말해 사도 바울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로써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삶의 문제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조차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각에 행동의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합니다.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상태를 율법에 대한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뜻하고 의지하고 소원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곤고함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곤고함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으로의 관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곤고함을 나의 곤고함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민하는 자들만이 고민이 해결됐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작 세상에서의 형통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23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속사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볼 때에는 상대에 따라 나의 입장도 달라집니다. 한 남자가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녀 앞에서는 아버지이며, 부모 앞에서는 아들이며, 회사에서는 직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나를 하나님 앞에 서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육체적인 관점에서 드러나지 않기에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속사람이 없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 문제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조를 맞춰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진다 한들 우리는 보조를 맞춰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육신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하였고 같은 의미에서 24절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하였는데 팔렸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육신과 보조를 맞추는 동안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었고 그것이 정착되어 체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알려지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서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일이 인격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복해야 할 고지가 보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턱에 걸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 때문에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육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괴리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곤고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필요하다 여기는 어느 것 하나도 사도 바울의 곤고함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75억 인구가

75억 가지 불행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불행을 느꼈던 이유는 속사람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뜻하고 계시는데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사도 바울의 고민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25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드리는 것이 방해 받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곤고함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곤고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고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육체라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육체가 있어서 삶을 살기에 육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곤고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곤고함을 극복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은 다음 장인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따르자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마음에서 입으로 행동에서 다 지켜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제시된 율법의 요구가 다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더니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이 알려지면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행될 때에 나온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의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 육체를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언급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를 경멸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연애와 결혼입니다. 다만 육체에 매인 죄악의 연장선상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느냐 혹은 영에 매여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중에 연애와 결혼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에 매인다고 해서 육체를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에 매여서 마음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육체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비어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마음이 영이 아닌 육체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셔도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기본적인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지도 않겠지만 설령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육체를 따르는 성향을 극복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할 때에 마음은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육체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마음에서 육체가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육체 대신 마음을 채울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 뇌 속의 해마에 저장된 기억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뇌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 기억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곧 더 이상 육체를 통해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받았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함을 통해서 실제로 죽지 않더라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치 육체가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육체가 아닌 영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가족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제공합니다. 육체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육체를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곤고함이 행복으로 변하는 사랑의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사랑에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는 믿음과 소망의 단계를 거칠 때에 율법이 하나씩 하나씩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수준 높은 예수님의 율법적 요구들이 어느덧 지켜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신 그 길을 내 마음의 갈 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어느덧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드리는 준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곤고함은 이어질 것입니다. 속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드리고자 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체질이 있기에 계속해서 충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라는 언급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마음은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곤고함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육체를 따르는 체질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하늘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